

## 성공적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죽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김지현† 강연욱 유경 이주일  
한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림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인들을 밝히고, 성공적 노년기의 중요한 특징인 자아 통합감에 대한 죽음 태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성별, 연령, 종교 유무, 및 건강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들과 우울, 불안, 자살충동, 및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과 같은 적응 지표 뿐 아니라, 노년기 죽음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년기의 자아 통합감의 성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예측 변인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서 노인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65세 이상 408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얻어졌다. 여성 노인들은 죽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성공적 노년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높았다. 또한 65세부터 74세까지의 전기 노년 집단과 75세 이상 후기 노년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죽음에 대한 접근적인 수용 태도가 성공적 노년기 자아 통합을 성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년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건강을 포함한 인구학적 변인만을 포함하는 모델 1은 약 6.4%의 변산을 설명하고, 자살충동성을 포함하는 적응지표를 추가한 모델 2는 약 8.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죽음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모델 3은 성공적 노년기의 자아 통합감에 대한 인식의 약 41.4%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인식이 아닌 실제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인 노화의 결과인 노년기 자아 통합감의 인식과 실제 성취 정도를 예측하게 해주는 변인이라는 것을 검증한 연구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이 논의되었고,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죽음에 대처하는 유능감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죽음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자아통합감,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공포, 죽음수용, 삶 만족, 성차, 연령차

\* 본 논문은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과제번호 KRF-2007-411-J01902)  
† 교신저자: 김지현,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번지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Email:jenny10@snu.ac.kr

한국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과거에 비해 크게 연장됨에 따라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이 인식하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비롯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포괄적인 조사 연구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사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을 분석하는 첫 과정으로서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성공적 노화는 노년기 자아 통합감으로 대표될 수 있다(한성열, 1990). Erikson(1980)은 노년기에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 중 하나로 지난날 자신의 갈등과 죄책감을 해결하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지내온 인생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Erikson은 이런 과제를 자아 통합감(ego-integrity)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자아 통합감이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로 보고 수용하며,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고,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심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Erikson, 1997).

본 논문은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psychosocial theory)의 이론적 틀에 근거하고 있는데, Erikson의 이론은 인간 발달의 폭넓은 관점을 제공하여 주는 이론이며 노년기 자아 통합감의 성취 및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한다(Erikson, 1963, 1982; Erikson, Erikson, & Kivnick, 1986).

자아통합감과 더불어,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death)이다.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와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며 죽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구 주제이다.

Erikson은 생애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 대 절망(Integrity versus Despair)의 단계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였다. Lifton(1979)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상징적 불멸성(symbolic immortality)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인생이 허비되었다거나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은 죽음에 대한 높은 공포를 보이는 반면,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수용하고 자아 통합을 이룬 사람은 죽음 공포가 낮다는 것이다.

한편, Butler(1975)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자각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 태도를 높인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Erikson(1963)이 규정한 인간 생애의 발달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통합 대 절망의 단계에서 경험되는 내용과 합치한다(Wong 등, 1994).

이지영과 이가옥(2004)의 주장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노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나 그에 대한 의미 부여가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오진탁과 김춘길(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삶에서 형성되고 그 태도와 노인의 삶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노인에게 긍정적인 죽음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죽음 준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 well-being 뿐 아니라 well-dying을 강조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고 있으며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노년기 심리적 적응과 자아 통합감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노인들의 특성일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성공적 노화의 지표인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죽음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줄 것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즉,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과 불안이나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적응 지표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가 성공적 노년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예측 변인일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과 관계가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및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측정하는 한편,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 되는 불안이나 우울, 자살 충동성, 및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자아 통합감의 성취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목적은 한국 노인들이 성공적 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태도에서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노화와 관련한 기존 연구 결과들은 한국 여성 노인의 평균 수명이 남성에 비해 길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 영역에서 노년 집단에서의 성차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서 여성 노인들과 남성 노인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인지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노년 집단 내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성공적인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자아통합감이 높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노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내외 학계에 보고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노인들일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자아통합감은 성공적 노화의 지표 중 하나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비교하여 보기 위해서 인구학적 변인, 노년기 심리적 적응 지표, 및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의 변인들을 포함하는 각각의 모델들을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성공적 노화의 지표인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설명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자아 통합감

자아 통합감(ego-integrity)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자기의 지나간 인생 경험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고, 달성하지 못한 일보다 그 동안 이룩한 일과 행운에 대해 감사하는 자

세를 가지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왔다는 느낌을 가지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윤진, 1985). Santor와 Zuroff(1994)는 자아통합감이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며 동시에 자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아 통합감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 간의 조화된 견해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김정순, 1988). 노년기에 이러한 자아 통합감을 달성한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기를 동요 없이 지낼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다(한성열, 1990).

반면에 노년기의 절망감(despair)은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다(Erikson, 1980). 윤진(1985)은 절망감에 빠진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 혐오를 느끼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처리하지 못한 채 불안한 노년을 맞게 된다고 하였다.

Hamachek(1990)는 자아 통합감과 절망감을 반영하는 기본적인 행동 특징과 태도를 구분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자아 통합감을 이룬 사람들의 행동적 표현들 중 하나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수용한다'였고,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적 표현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또한 Drolet(1990)는 삶의 목표가 뚜렷할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낫다는 것을 밝혔고 Durlak(1972)은 삶의 의미와 목표를 명확하게 보고한 피험자들이 죽음에 대하여 더 적은 공포를 보이고 죽음을 더 잘 수용하며 더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러한 관점은 인생 재조망(life review)과 죽음 태도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 죽음에 대한 태도

Tomer(1994)의 개관에 따르면, 죽음 태도를 연구하는 심리학적 접근들로는 자기실현이론(Self-Actualization Theories, Maslow, 1970; Rogers, 1959), 의미탐색이론(Search-for-Meaning Theories, Frankle, 1963; Antonowski, 1979; Maddi, 1970; Taylor, 1983; Thompson & Janigian, 1988), 개인적 구성 이론(

Personal Construct Theory, Kelly, 1955), 부인 및 긍정적 착각 이론(Denial and Positive Illusion Theories, Freud, 1946; Becker, 1973), 죽음 불안의 2요인이론(The Two-Factor Model of Death Anxiety, Gilliland & Templer, 1985-1986; Templer, 1976), 테러 관리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Rosenblatt, Greenberg, Solomon, Pyszczynski, & Lyon, 1989), 자기 통제 착각 이론(Illusions of Self-Control Theory, Taylor & Brown, 1988; Taylor, Collins, Skokan, & Aspinwall, 1989), 자기 개념 괴리 이론(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Higgins, 1987), 및 심리사회적 발달이론(Psychosocial Theory of Development, Erikson, 1963, 1982) 등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발달적 접근에서 보는 죽음에 대한 태도는 생애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이는 죽음 개념을 구성하는 불변성(permanence: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것), 필연성(inevitability: 모든 생물은 죽는다는 것), 중단성(cessation: 죽으면 모든 활동, 느낌, 사고가 중단된다는 것), 적용성(applicability: 죽음은 살아있는 대상에만 적용된다는 것) 및 원인성(causation: 죽음은 신체의 기능 정지가 원인이라는 것) 등의 다섯 가지 주요 구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생애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며, 여러 연구자들은 아동기를 비롯한 각 생애 발달 단계에 따른 죽음 태도의 변화를 연구하여 왔다(e.g., Carey, 1999; Kenyon, 2001; McNeil, 1986; Word, 1996).

Tobin(1996)은 노년기에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죽음 공포(fear of death)라고 주장하였는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죽음 공포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e.g., Bengston, Cuellar & Ragan, 1997; Gesser, Wong, & Recker, 1998; Keller, Sherry, & Piatrowski, 1984). 최근에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공포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수용까지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구성체라는 점이 지적되어 죽음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 왔다(e.g., Collett & Lester, 1969; Hoelter, 1979; Neimeyer, Bagley, & Moore, 1986; Schultz, 1977; Wong, Recker, & Gesser, 1994). 이러한 연구

들은 공통적으로 죽음 공포(Death Fear)와 죽음 수용(Death Acceptance)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구성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지지 증거들에 기반하여 죽음에 대한 다차원적 측정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Feifel과 Branscomb(1973)은 죽음 불안(Death Anxiety)은 의식적으로 자각되지 않는 일반적 느낌이며 죽음 회피(Death Avoidance)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하거나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Wong(1994)은 죽음 공포를 의식적인 수준에서 언어적으로 보고되는 정도에 따라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죽음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죽음 공포, 죽음 회피,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 및 도피적 수용으로 구분하였다. Elisabeth Kübler-Ross(1969)는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가 죽음 수용이며, 이는 건강한 개인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Klug와 Sinha(1987)는 죽음 수용 태도를 인생의 유한성을 비교적 평온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 선행 연구 결과

죽음 태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연령, 성별, 주거환경, 경제적 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가지고 구분한 노인 집단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Fortner와 Neimeyer(1999)는 죽음 불안과 관련된 49개 논문들에 대한 양적 개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죽음 공포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은 연령(age), 성별(gender), 자아 통합감(ego integrity), 시설 수용 여부(institutionalization), 심리적, 신체적 문제들(psychological and physical problems) 및 종교성(religiosity)이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연령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죽음 공포가 낮아진다는 관계성을 밝힌 연구들(Johnson, 1980; Neimeyer, 1985)이 있었으며, Gesser 등(1988)은 청년 집단(18-26세), 중년 집단(35-50세) 및 노년 집단(60세 이상)의 세 집단에게 죽음 태도 척도(Death Attitude Profile)를 실시한 결과, 중년 집단이 가장 높은 죽음 공포를 보이고

청년 집단은 그 다음으로 높은 죽음 공포를 나타냈고 노인 집단의 죽음 공포가 가장 낮다는 결과를 얻어, 연령과 죽음 공포간의 비선형적 관계성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한편, Pollark(1980)은 죽음 공포 연구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여성의 죽음 공포 수준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 주장했는데, 다수의 연구들이 그의 주장을 지지하였다(Fleming, Bunting, & Clare, 1980; Lonetto, Mercer, McMordie, 1978; Neimeyer, Bagley, & Moore, 1986; Neimeyer 등, 1977; Wass & Myers, 1982). 이러한 차이는 여러 문화에서 보편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onetto 등, 1980; McMordie & Kumar, 1984).

Neimeyer(1986)는 Collett-Lester의 죽음 불안 척도 중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Fear of Dying of Self)' 하위 척도 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공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Dattel과 Neimeyer(1990)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죽음 공포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Stillion, 1985)을 검증하기 위하여 죽음 불안 척도(DAS: Death Anxiety Scale), 위협 지표(Threat Index), Jourard 자기 개방성 질문지(Jourard Self Disclosure Questionnaire),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척도 등을 포함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피험자들의 자기 개방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게 여성들의 죽음 공포 수준이 높은 것을 밝혔다.

또한 Wong, Reker 및 Gesser(1994)의 연구에서는 죽음 수용적 태도에서의 성차를 살펴보았는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죽음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특히 접근적 수용의 경우에 그러한 성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ry(2003)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죽음 공포 수준이 낮고 적응을 잘 한다고 주장하였다. Klenow와 Bolin(1989)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죽음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하였고 Berman과 Hays(1975)는 여성들의 죽음 공포 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였다.

Jeffers, Nichols와 Eisdorfer(1961)는 종교적 헌신

이 강한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더 믿는 경향이 있고 죽음 공포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Berman 등(1975)은 종교적 관여 정도와 사후 세계에 대한 신념간의 강한 상관을 발견하였다. Peterson과 Greil(1990)의 연구에서도 사후 세계에 대한 신념과 종교성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Aday(1984)는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이 종교의 주된 기능인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 공포와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종교적 신념과 죽음 공포간의 부적 관계성을 보고했다(Feifel & Nagy, 1981; Hooper & Spilka, 1970; Martin & Wrightsman, 1965; Stewart, 1975; Templer, 1972). 하지만 둘 간의 관계성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들도 있고(Feifel, 1974; Kalish, 1963; Templer & Dodson, 1970), 종교적인 사람들이 죽음 공포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난 연구들도 존재한다(Templer & Ruff, 1975; Young & Daniels, 1981).

한편, Flint, Grayton 및 Ozmon(1983)은 죽음 수용과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Wong 등(1994)은 죽음 공포가 높을수록 안녕감이 저하된다는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은 높은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과 관련되었다. 이들 연구자들은 청년 집단과 중년 집단 및 노인 집단의 죽음 공포 수준과 심리적 및 신체적 안녕감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노인 집단의 경우에는 죽음 공포와 죽음 회피 수준이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하게 부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비해서 청년 집단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노인 집단의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 태도는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였으며, 이는 노년기의 죽음 불안 감소가 죽음 수용의 증가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여 주는 결과이다.

## 방 법

### 연구참가자

본 연구는 2007년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였다.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다섯 개의 하위 연령 집단에 각각 200명씩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을 실시한 것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전국 23개 시/군 단위의 인구 수 분포에 근거하여 층화된 크기에 비례하여 조사 대상자의 수가 할당되었다.

실사(field survey)는 노인 관련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전문기관의 면접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연구 주제와 관련된 유의사항들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전기 노년 집단 205명과 75세 이상의 후기 노년 집단 203명을 포함한 총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도 구

#### 인구학적 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및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인구학적 변인을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성별은 남성을 1로, 여성을 2로 지정하였고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였다. 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및 기타 종교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통계 처리를 위해서 종교 없음을 1로, 종교 있음을 2로 지정하여 입력하였다.

#### 노년기 적응의 측정

노년기의 적응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영역의 척도 문항들을 연구에 포함시켰는데, 본인이 느끼는 우울이나 불안 정도를 3점 척도 상에 답하게 하였고 지

난 3년간 자살 충동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적응 관련 문항들은 한국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에 포함된 것으로서 건강 영역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는 .732였다.

한편,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은 "현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를 '100'으로 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0'이라고 한다면 귀하의 현재 상황의 모든 것을 고려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몇 점이라고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죽음에 대한 태도 측정

죽음 태도의 측정은 김지현(2008)이 Wong 등(1994)의 죽음 태도 질문지-개정판(Death Attitude Profile-Revised)을 번안하여 개발한 죽음 태도 설문지 축약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불안 정도와 죽음을 회피하는 경향성을 포함하는 죽음 공포 문항들과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 및 종교적 수용을 측정하는 죽음 수용 태도 척도 총 13문항을 사용하였다.

김지현의 연구(2008)에서 보고된 축약형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718이다. 문항 내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죽음이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 등은 죽음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이며,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지는 않는다",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때마다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등의 문항은 죽음을 회피하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죽음에 대한 중립적인 수용 태도는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단지 살아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죽음에 대한 접근적인 수용 태도를 반영하는 문항들은 "죽음은 인생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죽음은 고통이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이었다.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고 믿는다"는 문항은 종교적인 죽음 수용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항들이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노인들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5점 척도 상에서 표시하게 하였다.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는 .70이었다.

표 1. 연구 참가자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56	38.2
	여성	252	61.8
연령	65세-74세	205	50.2
	75세 이상	203	49.8
건강	매우 건강하다	20	4.9
	건강하다	116	28.4
	보통이다	123	30.1
	건강하지 못하다	127	31.1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22	5.4
종교 유무	있다	286	70.1
	없다	122	29.9
우울/불안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300	73.5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98	24.0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10	2.5
지난 3년간의 자살충동	여러 번 있었다	20	4.9
	한두 번 있었다	51	12.5
	없었다	337	82.6

### 자아 통합감에 대한 인식 측정

홍주연(2000)의 연구에서 개발된 자아 통합감 척도 중 6문항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인생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해도 인생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등 인생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과 "지금까지의 인생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허망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 과거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항들이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노인들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5점 척도 상에서 표시하게 하였다. 홍주연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829였으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는 .74이었다.

### 결 과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노년 집단을 대상으로 노년기 자아통합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살

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별, 연령, 건강, 종교 등의 인구학적 변인 뿐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등과 같은 적응 지표 변인들과 죽음에 대한 태도 변인 등을 포함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설명력을 모델 별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 분석 결과, 성별은 낮은 죽음 공포 및 높은 죽음 수용적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였는데 여성 노인들은 남성 노인들에 비해서 성공적 노년기란 죽음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를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공적인 노화와 자아통합감이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답한 노인일수록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평가하여 자아 통합감을 갖는 것이 성공적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높았다. 우울이나 불안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수용적 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반적인 삶 만족도가 낮은 노인들일수록 죽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한편, 연령이 많을수록 전반적인 삶 만족은 낮았으며 건강하고 우울이나 불안을 덜 느끼며 자살 충동을 경험하지 않을수록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남성 노인 집단과 여성 노인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의 다섯 하위 요인들을 포함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 노인들은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과 종교적 죽음 수용

표 2.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결과

	성별	연령	건강	종교 유무	우울 불안	자살 충동	전반적 삶만족	낮은 죽음 공포	높은 죽음 수용	자아통합감
1*	1									
2	.12*	1								
3	.24***	-.13**	1							
4	.26***	.04	.00	1						
5	.10*	.08	-.30***	-.00	1					
6	.01	.03	-.11*	-.04	.36***	1				
7	-.08	-.12*	.32***	-.08	-.18***	-.17***	1			
8	.12*	.07	-.01	.04	.00	-.00	-.08	1		
9	.17***	.10*	.03	.07	.04	-.04	-.13**	.63***	1	
10	.07	-.07	-.19***	.10*	-.09	-.18***	.04	.49***	.54***	1

\* 1:성별 2:연령 3:건강 4:종교유무 5:우울/불안 6:자살충동 7:전반적 삶 만족도 8:낮은 죽음 공포 9:죽음 수용 10:자아통합감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 성별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남성(N=156)		여성(N=252)		t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73.24	(6.05)	74.74	(5.84)	-2.48	.013*
건강	3.15	(.96)	2.65	(.98)	5.04	.000***
종교 유무	1.54	(.49)	1.79	(.40)	-5.61	.000***
우울/불안	1.22	(.47)	1.33	(.51)	-2.04	.041*
자살 충동	1.21	(.49)	1.23	(.53)	-.35	.726
전반적 삶 만족	62.63	(17.19)	59.40	(18.01)	1.79	.074
죽음 불안	3.18	(.81)	3.36	(.82)	-2.19	.029*
죽음 회피	3.30	(.81)	3.47	(.75)	-2.10	.036*
중립적 죽음수용	3.59	(.77)	3.69	(.75)	-1.32	.186
접근적 죽음수용	3.09	(.89)	3.40	(.85)	-3.48	.001***
종교적 죽음수용	3.00	(.97)	3.32	(1.01)	-3.19	.001***
자아통합감	2.63	(.87)	2.69	(.86)	-1.49	.135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 전기 노년 집단과 후기 노년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65세~74세(N=205)		75세 이상(N=203)		t값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1.56	(.49)	1.67	(.47)	-2.37	.018*
건강	3.08	(1.00)	2.84	(.99)	2.42	.016*
종교 유무	1.73	(.44)	1.67	(.47)	1.36	.174
우울/불안	1.25	(.50)	1.32	(.50)	-1.23	.218
자살 충동	1.22	(.53)	1.22	(.50)	.05	.958
전반적 삶 만족	62.26	(16.40)	58.99	(18.92)	1.86	.063
죽음 불안	3.26	(.78)	3.32	(.85)	-.71	.474
죽음 회피	3.40	(.72)	3.41	(.83)	-.22	.825
중립적 죽음수용	3.65	(.73)	3.65	(.78)	.00	.999
접근적 죽음수용	3.15	(.91)	3.41	(.83)	-2.94	.003**
종교적 죽음수용	3.20	(1.04)	3.20	(.97)	-.02	.984
자아통합감	2.69	(.87)	2.65	(.95)	.811	.418

\*  $p < .05$ , \*\*  $p < .01$

태도가 높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남성 노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종교를 가진 노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분석 결과 종교 유무의 성차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여성 노인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우울과 불안에서의 차이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회피에서 여성이 더 높은 경향성을 설명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여성 노인들은 남성 노인들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으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7$ ). 노년기 자아통합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살 충동성에서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피험자를 전기 노년 집단(65~74세, 205명)과 후기 노년 집단(75세 이상, 203명)으로 구분하여 평균 차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전기 노년집단에서 남성은 90명, 여성은 115명이었으며, 후기 노년집단에서는 남성이 66명, 여성이 137명이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이외에 노년기 연령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은 건강과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 태도였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

이 나빠지는 것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접근적인 수용 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연령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비교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자아 통합감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건강, 종교 유무 등이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고 모델 2에서는 우울이나 불안, 자살 충동 및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의 적응 지표들을 포함하였으며 모델 3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 수용 태도 변인을 포함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인구학적 변인들만을 포함한 모델 1이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의 약 6.4%의 변인을 설명하고( $F = 6.878$ ,  $p < .001$ ,  $R^2 = .064$ ), 자살 충동과 우울, 불안 및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 등의 노년기 적응 지표들을 포함한 모델 2는 약 8.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5.587$ ,  $p < .001$ ,  $R^2 = .089$ ). 한편,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을 포함하는 모델 3의 설명력은 약 41.4%이었다( $F = 13.257$ ,  $p < .001$ ,  $R^2 = .414$ ).

인구학적 변인들 중에서는 건강이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eta = -.175$ ,  $t = -4.04$ ,  $p < .001$ ), 이는 노화함에 따라 건강이 악화될수록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자아통합을

표 5.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beta$	$t$	$\beta$	$t$	$\beta$	$t$
<b>인구학적 변인</b>						
성별	.114	2.20*	.114	2.21*	.026	.62
연령	-.054	-1.09	-.055	-1.13	-.10	-2.15
건강	-.220	-4.40***	-.220	-4.10***	-.175	-4.04***
종교 유무	.074	1.46	.065	1.31	.050	1.23
<b>적응 지표</b>						
우울/불안			.017	.32	-.002	-.047
자살 충동			-.165	-3.20***	-.127	-3.06**
삶 만족도			-.043	-.84	.035	.84
<b>죽음에 대한 태도</b>						
낮은 공포					.248	5.00***
높은 수용					.396	7.86***
<b>F</b>	6.878***		5.587***		13.257***	
<b>R<sup>2</sup></b>	.064		.089		.414	
<b>R<sup>2</sup> change</b>			.025*		.325***	

\*  $p < .05$ , \*\*  $p < .01$ , \*\*\*  $p < .001$

이루는 것이 성공적으로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을 시사하여 주는 결과이다.

한편 노년기 적응 지표 중에서는 자살 충동이 자아 통합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 $\beta = -.127$ ,  $t = -3.06$ ,  $p < .01$ ). 자살 충동을 경험하지 않는 노인들이 자아 통합감을 성취하는 것을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아 통합감의 정의에 비추어 추론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은 죽음에 대한 낮은 공포( $\beta = .248$ ,  $t = 5.0$ ,  $p < .001$ )와 높은 죽음 수용 태도( $\beta = .396$ ,  $t = 7.86$ ,  $p < .001$ )를 갖는 것이 자아 통합감을 이루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의 회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 1에 비해서 모델 2의 설명력이 약 2.5% 증가한 것에 비해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는 모델 3은 약 32.5%의 변산성을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노인들이 보고한 자아통합감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와 적응 지표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 조사가 요구되므로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노년 집단의 죽음 태도가 자아통합감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노년기 자아통합감과 죽음 태도를 실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인구학적 변인들만을 입력 변인으로 한 모델 1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비해, 자살충동과 우울, 불안 및 삶에 대한 만족 등의 노년기 적응 지표들을 포함한 모델 2는 높은 설명력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F = 15.071$ ,  $R^2 = .575$ ,  $p < .001$ ).

죽음 공포와 수용을 포함하는 모델 3은 약 3.3%의 변산성을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text{ change} = .033$ ,  $p < .05$ ). 즉, 노년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적게 경험하는 것이 자아통합감을 성취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85$ ,  $t = -2.515$ ,  $p < .05$ ).

표 6. 노년집단의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N= 85)

	Model 1		Model 2		Model 3	
	$\beta$	<i>t</i>	$\beta$	<i>t</i>	$\beta$	<i>t</i>
<b>인구학적 변인</b>						
성별	.041	.355	.062	.783	.078	.999
연령	.196	1.682	.000	.004	.005	.065
건강	.239	1.990*	-.305	-3.026**	-.289	-2.938**
종교 유무	.030	.267	-.113	-1.431	-.123	-1.482
<b>적응 지표</b>						
우울/불안			-.160	-1.795	-.099	-.918
자살 충동			-.128	-1.156	-.178	-2.048*
삶 만족도			.751	7.527***	.747	7.551***
<b>죽음에 대한 태도</b>						
죽음 공포					-.185	-2.515*
죽음 수용					-.010	-.125
<i>F</i>	1.317		15.071***		13.095***	
<i>R</i> <sup>2</sup>	.061		.575		.608	
<i>R</i> <sup>2</sup> change			.514***		.033*	

\*  $p < .05$ , \*\*  $p < .01$ , \*\*\*  $p < .001$

### 논 의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 연령, 건강, 및 종교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이나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및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등과 같은 적응 지표들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가 성공적인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즉,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낮고 죽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높은 노인들은 자아통합감을 성취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지, 또한 그러한 인식이 존재한다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실제로 노년기 자아통합감의 성취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예측 변인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근거가 되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20대부터 80대까지의 전 연령 집단에서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은 자아통합감을 성취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

과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노년기 자아통합감이 인구학적 변인, 적응 지표, 및 죽음에 대한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모델에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죽음 공포와 수용을 포함하는 모델의 설명력은 약 41.4%이었다( $F = 31.257$ ,  $p < .001$ ,  $R^2 = .414$ ).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로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노년기 자아통합감을 실제로 매개하는 변인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태도와 개개인의 자아 통합감 수준을 직접 조사하여 죽음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가 실제로 높은 자아 통합감 수준을 예측하여 주는 변인인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낮은 노인들이 자아통합감이 높은 경향성이 존재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죽음 공포가 낮은 것이 노년기 자아 통합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여 주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죽음 태도를 포함하는 모델은 약 60.8%의 변산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13.095$ ,  $p < .001$ ,  $R^2 = .608$ ). 따라서 노년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적게 경험하는 것이 자아통합감을 성취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beta = -.185$ ,  $t = -2.515$ ,

$p < .05$ ). 김지현(2008)은 노년기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변인들에 대하여 실태 조사 연구를 실시한 결과, 노년기 죽음 태도가 자아통합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죽음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한 매개 변인이 노년기 자아통합감 수준이라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실제 자아통합감과 죽음 태도간의 관계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으로 설계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연구에서는 인식과 실태 조사 결과간의 차이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이나 종교, 및 경제 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들의 관계성을 통제하여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인구학적 변인들 중에서는 건강이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과 실제 자아통합감 수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응 지표 중에서는 자살 충동이 자아 통합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낮은 공포를 갖는 것이 자아 통합감을 이루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다.

한편, 성공적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본인의 삶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실제로 본인이 보고한 자아통합감에는 삶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통합감의 개념적 정의를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자아통합감을 성취한 사람들은 죽음 공포가 낮고 죽음 수용이 높을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성이 유의미하였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죽음 공포가 낮은 것은 자아통합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데 비해서 죽음 수용적 태도와 자아통합감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인식 조사 자료에 근거한 분석 결과를 실제 노년 집단의 자아통합감에 대하여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과 실제 자아통합감의 성취에 영향을 주는 예측 변인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태도는 인구학적 변인이나 우울 같은 적응지표에 비해서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교육

을 통하여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성공적으로 자아를 실현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한 여러 심리학자들(e. g., Feifel, 1990; Maslow, 1968; May, Angel, & Ellenberger, 1958)과 자아통합감을 달성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연구들(e. g., 한성열, 1990; 홍주연, 2000)을 상기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노년기 죽음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년기의 지표인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서 연령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접근적 수용 태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나 경제적 혹은 관계적 측면에서의 괴로움이 늘어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여성 노인의 죽음 수용 태도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Wong, Reker, 및 Gesser(1994)의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를 지지하였다. Aday (1984)는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이 종교의 주된 기능인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 공포와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노년기 죽음에 대한 태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노년기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자아 통합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아 통합감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자신의 죽음을 대하는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도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노년기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아 통합감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상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상대적인 중점을 두어야 하는 영역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 공포를 줄이고 죽음 수용적 태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자아 통합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생 회고(life review)나 회상(remiscence) 치료를 포함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죽음에 두려움 없이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

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주제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Durlak & Riesenber, 1991). 그러나 Linn 등(1983)의 연구에서는 죽음준비교육의 결과, 타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줄어들지만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ster(1994)는 관련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죽음 공포의 감소를 종속 변인으로 측정하여 죽음준비교육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은 그 수가 매우 적으며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연구들은 주로 죽음 불안이나 공포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불안이나 공포의 완화에 목표를 두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집단 토론 기법을 사용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 교육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낮추려는 개입의 효과는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낼 뿐 아니라 죽음 불안을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유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되었다(Durlak, 1994).

노인 집단에게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삶에 주는 영향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노년기 생애 과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반영하는 자아통합감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에 대처하는 자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Robbins(1994)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있는 노인이나 환자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죽음 대처 유능감(death competency)의 개념에 초점을 두어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obbins(1994)는 죽음대처 유능감이란 자기 자신의 죽음 뿐 아니라 죽음을 앞둔 환자의 가족이나 호스피스, 의사 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된 타인의 죽음에 대처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자신감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Durlak(1994)은 죽음준비교육의 주된 목표를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자각의 증진, 죽음에 대한 수용을 촉진하는 것, 및 죽음에 대한 개인적 신념을 변화시키는 태도 변화 기법의 사용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ry(2000)는 죽음 공포를 줄이고 수용을 높이는 예방적 프로그램이 죽음에 대처하는 유능감을 증진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죽음대처 유능감이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Bandura(1982; 1993)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개념의 영역특정적(domain-specific)인 측면으로서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고 죽음을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노년 말기에는 우울이나 불안을 줄임으로써 적응을 돕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죽음이나 배우자를 비롯한 가까운 타인의 죽음을 비교적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인 죽음대처 유능감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노년기의 심리적인 적응과 안녕을 위하여 더 중요할 수 있다.

Bandura(1993)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은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통하여 수정되고 향상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년기 죽음 대처 유능감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서 자아 통합감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자아 통합감을 향상시키며 그 결과 죽음에 대처하는 노인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정순(1988).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2008).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 및 죽음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민경환(2005). 청년 집단의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2), 11-36.
- 오진탁·김춘길(2009).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년학,

- 29(1), 51-69.
- 유 경 · 민경환 (2005). 정서 대처 양식과 정서 인식이 장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1-18.
- 윤진(1985).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지영 · 이가옥(2004).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24(2), 193-215.
- 한성열(1990). 노년기 회상에 관한 성차 연구: 시간적 투자와 회상의 기능 및 내용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 논총*, 20, 57-76.
- 홍주연(2000). 성격과 자아통합감이 노인 회상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day, R. H. (1984). Belief in afterlife and death anxiety: Correlates and comparisons. *Omega*, 15, 67-7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erman, A., & Hays, J. E. (1975). Relation between death anxiety, belief in afterlife,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318-321.
- Bugen, L. A. (1980-81). Coping: Effects of death education. *Omega*, 11, 175-183.
- Butler, R. N. (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old age. *Psychiatry*, 26, 65-76.
- Dattel, A. R. & Neimeyer, R. A. (1990). Sex differences in death anxiety: Testing the emotional expressiveness hypothesis. *Death Studies*, 14, 1-11.
- Drolet, J. L. (1990). Transcending death during early adulthood: Symbolic immortality, death anxiety, and purpose of lif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148-160.
- Durlak, J. A. (1994). Changing death attitudes through death education.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pp. 243-260). Washington DC : Francis & Taylor.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 Feifel, H., & Branscomb, A. B. (1973). Who's afraid of dea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1, 282-288.
- Flint, G. A., Grayton, W. F., & Ozmon, K. L. (1983). Relationships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acceptance of death by elderly persons. *Psychological Reports*, 53, 290.
- Fortner, B. V., & Neimeyer, R. A. (1999). Death anxiety in older adults: A quantitative review. *Death Studies*, 23, 387-412.
- Fry, P. S. (2003). Perceived self-efficacy domains as predictors of fear of the unknown and fear of dying among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18, 474-486.
- Gesser, G., Wong, P. T. P., & Reker, G. T. (1988). Death attitudes across the life spa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eath Attitude Profile. *Omega*, 2, 113-128.
- Hamachek, D. (1990). Evaluating selfconcept and ego status in Erikson's last three psychosocial stag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July/August, 68, 677-683.
- Jeffers, F. C., Nichols, C. R., & Eisdorfer, C. (1961). Attitudes of older persons toward death.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16, 53-56.
- Klug, L., & Sinha, A. (1987). Death acceptance: A two-component formulation and scale. *Omega*, 18, 229-235.
- Kübler-Ross, E. (1981). *Living with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 Kübler-Ross, E., & Kessler, D. (2000). *Life Lessons*. New York: Scribner.
- Neimeyer, R. A. (1994).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Pollark, J. M. (1980). Correlates of death anxiety: A

review of empirical studies. *Omega*, 10, 97-121.

Tomer, A. (1994). Death anxiety in adult life: The practical perspectives.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pp. 3-2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Wong, P. T. P. Recker, G. T. & Gesser, G. (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In R. A. Neimeyer (Ed.) *Death Anxiety Handbook*, (pp.121-14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Predictors of Ego-Integrity in the Concept of Successful Aging among the Elders

Jihyun Kim   Yeonwook Kang  
Hallym University

Kyung Ryu  
Choongbuk University

Juil Rie  
Hallym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is aimed at exploring the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the concept of successful aging and examining the influence of death attitude on ego-integrity among the elders.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demographics, psychological adaptation indices, and death attitude on the concept of ego-integrity as a result of successful aging. Another purpose is to examine gender differences and aging effects in ego-integrity and death attitude among the elders. Using a sample of 408 elders over 65 years of age, the relationships among diverse variables and ego integrity concept were investigated. As the result, death attitude including death fear and death acceptance and the demographic variables including gender, age, health, and religiosity as well as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indices including depression, state anxiety, suicidal tendency, and overall life satisfaction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n the concept of ego-integrity in the elderly. Findings from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women tend to report significantly higher death acceptance than men among the elders. Also, it was found that the old-old adults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death acceptance than the young-old adults group. The major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the influences of demographics,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death attitude on the concept of ego integrity as a result of successful aging. Therefore, the mediating effects of those variables on ego-integrity were assess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 supported the hypothesis concerning the superiority of death attitude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ego-integrity in the elderly group. A number of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present research were acknowledged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focusing on their practical importance on death education were discussed.

*Keywords* : ego integrity, death attitude, death fear, death acceptance, gender difference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10월 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11월 29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11월 30일